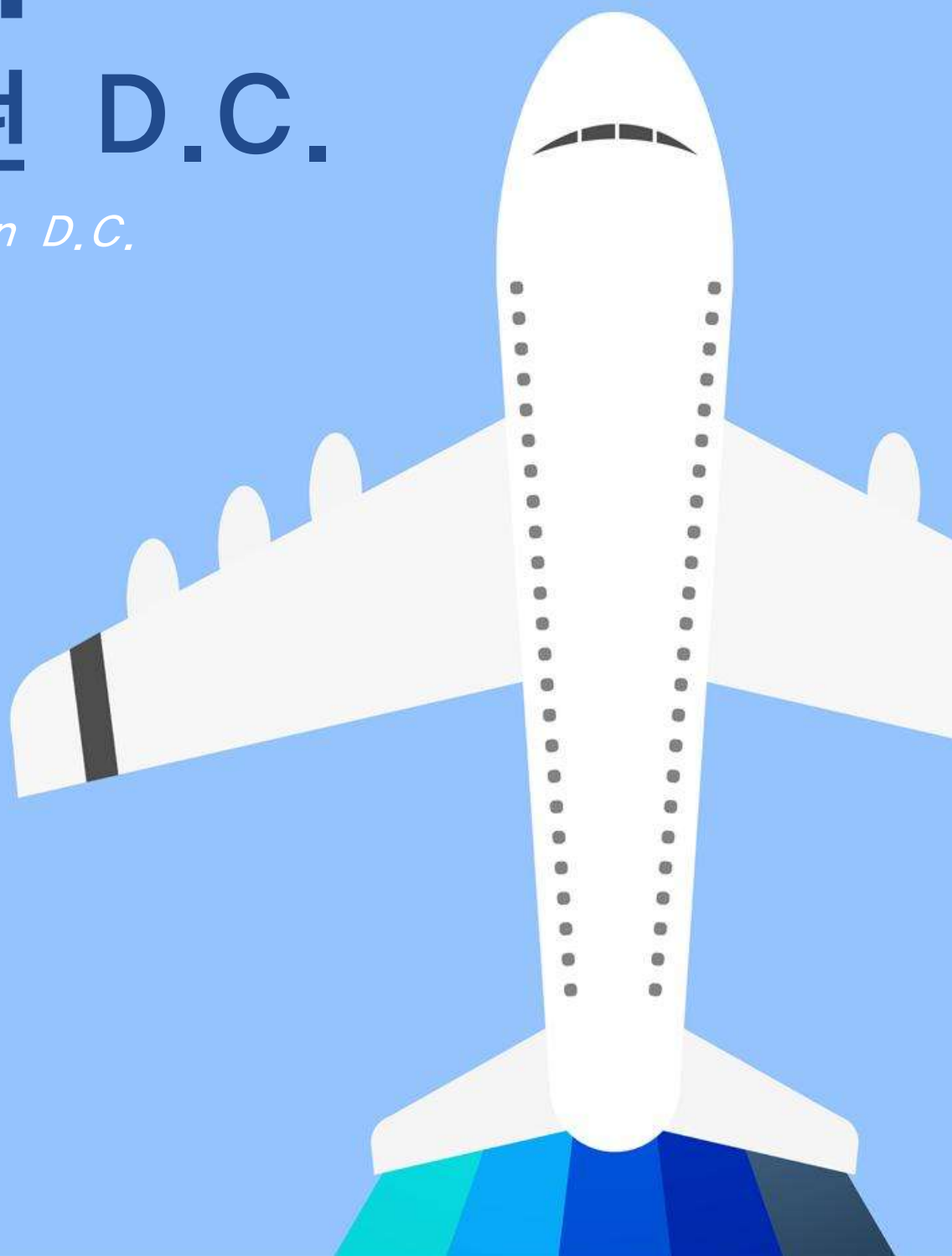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미국 워싱턴 D.C.

Washington D.C.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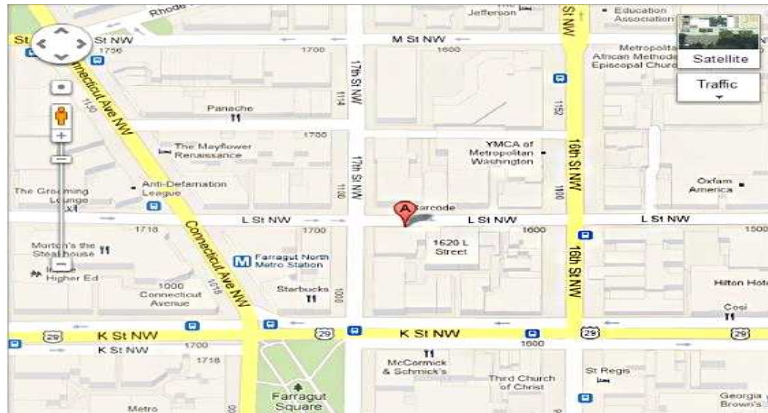
I. 출장 참고정보	01
무역관 정보	
출장 시 유의사항	
II. 미국 경제 동향	09
국가 개요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 동향	
III. 교역 동향	12
IV. 워싱턴 지역정보	17
일반 사항	
주요 경제지표	
V. 기타 유용정보	20
관광	
호텔 및 식당	
유용한 연락처	

I. 출장 참고정보

1. 무역관 정보

□ 워싱턴 무역관 위치

- 주소 :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 전화 : 1-202-857-7919
- 팩스 : 1-202-525-2769
- 업무시간 : AM 9:00~12:00 PM 1:00~5:00 (토·일·미 연방 공휴일 휴무)
- 교통 : Farragut West역 17가 방향 또는 Farragut North역 L Street 방향
- ※ 무역관은 DC 북서부(NW) 17번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



□ 공항에서 워싱턴 무역관 오시는 방법

- Dulles 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25마일(40Km)
 - 교통편 : 공항버스 또는 택시(지하철 없음)
 - 공항버스(Washington Flyer) 이용 시 시내까지 편도요금은 16달러로 약 45분 소요되며 Capital Hilton Hotel 인근에서 하차
 - 택시 이용 시 시내까지 요금은 약 60달러로 약 40분 소요
- National 공항(Ronald Reagan Washington National Airport)으로부터
 - 거리 : 5마일(8Km)
 - 교통편 : 지하철 또는 택시
 - 지하철 이용 시 공항역(National Airport Station)에서 Blue Line 승차, Farragut West역에서 하차하여 17가와 L Street이 만나는 지점이 무역관
 - 택시 이용 시 시내까지 요금은 약 20달러

2. 출장 시 유의사항

□ 출입국 / 비자

○ 입국절차

- 세관신고서 작성 요구 사항이 없어지며, 입국 심사 시 대질로 변경되었음. 세관신고서에 흔히 요구되었던 면세품 관련 및 현금 보유액 등의 질문을 미리 숙지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처음 도착한 미국 공항에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출입국 관리 및 통관 절차를 거쳐 CBP의 입국 승인을 받게 됨.
- 출입국 검색 시에는 생체 인식 수단(지문채취)을 통해 여행객의 신원과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여행 경비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한지(신용카드를 지참하면 유리), 언제 어떻게 미국에서 출국할 것인지(여행 일정표 사본을 지참하면 도움이 됨) 등을 질문받을 수 있음.
- 2013년 4월부터 미국 I-94(출입국 기록)가 전산화되면서 미국 방문자는 입국 시에 I-94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여권에 입국 도장을 받게 되었으나, 미국 입국 심사 직원들이 미국 체류 기간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므로 입국 시 여권에 받는 이민국 도장에 입국일, 입국 신분, 체류 만기 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비자

- 미국은 한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VMP)을 체결하여,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없이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 내 체류 가능 :
 - * 칩이 있는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함.
 - *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함.

○ 주한 미국 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 전화 : 서울지역: 02) 6009-9170, 한국 내 모든 지역은 국번 없이: 1600-8884

□ 주요 직항 항공편

구분	노선	기 편	출발시간	출발 요일	도착시간 (현지시간기준)
직항	인천-워싱턴	대한항공 093	10:25	매일	11:25
	워싱턴-인천	대한항공 094	13:25	매일	16:50 (+1일)
경유	인천-미네아폴리스-워싱턴	대한항공 5033 델타항공 4803	19:40	매일	23:54
	워싱턴-미네아폴리스-인천	델타항공 3949 대한항공 5034	12:05	매일	17:20 (+1일)

* 현재 코로나 19 여파로 대한항공의 워싱턴 D.C. 노선은 화, 수, 금, 일요일로 주 4회 운항 유지 중

□ 기후

〈미국 주요도시 연중 기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뉴욕	-3~4	-2~5	2~10	7~16	12~22	18~26	21~29	20~28	16~24	10~18	5~12	0~7
워싱턴	-3~6	-2~7	2~12	7~18	12~24	17~28	20~31	19~29	15~26	9~20	3~13	-2~7
LA	9~20	10~20	11~21	12~23	14~24	16~26	18~28	18~29	17~28	15~26	11~23	9~20
샌프란시스코	8~14	9~16	9~17	10~17	11~18	12~19	12~19	13~20	13~21	12~21	10~17	8~14
시카고	-9~0	-7~2	-2~8	4~15	9~21	15~27	18~29	17~28	12~24	6~17	0~9	-6~2
휴스턴	6~17	8~19	11~23	15~26	20~30	23~33	24~34	24~35	21~32	16~28	11~23	7~18

* 자료원 : National Weather Service

- 워싱턴 인근 날씨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함.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는 대체로 봄과 가을이며 4~5월과 9~10월이 방문 적기임.
-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므로, 복장은 한국 날씨에 맞게 준비하되, 봄, 가을의 경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비한 카디건 등의 겉옷 준비가 필요하며,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됨.

□ 시차

- 미국의 시간대는 하와이 시간대(HT), 알래스카 시간대, 태평양 시간대(PT)와 산악 시간대(MT), 중부 시간대(CT), 동부 시간대(ET)로 나누어지며 한국과의 시차는 아래 시간만큼 느림.
- * 워싱턴은 미국 동부시간(ET)을 따라 통상 한국보다 14시간 느리며, 일광절약시간의 경우 13시간 느림.

〈미국 시차표〉

시간대	일반시차	일광절약시간	시간대 포함 도시(예)
동부시간 (ET)	-14	-13	뉴욕, 마이애미, 워싱턴 DC
중부시간 (CT)	-15	-14	시카고, 텍사스
산악시간 (MT)	-16	-15	덴버
서부시간 (PT)	-17	-16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알래스카시간	-18	-17	앵커리지
하와이시간 (HT)	-19	-18	하와이

* 일광절약시간은 통상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시작하여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종료

□ 환율 및 환전

- 화폐단위: 미국 달러 USD(\$)
 - (지폐) \$1, \$2, \$5, \$10, \$20, \$50, \$100
 - (동전) 1¢, 5¢, 10¢, 25¢, 50¢, \$1 * \$1(달러) = 100¢(센트)
- 환율: 1달러=1182.93원 (*2020.8.28 기준)
 - 미국 달러와 원화 간 환전은 은행, 공항 등에서 가능. 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 달러 간 환전은 환전소 및 큰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가급적 출국 전 환전하여 가는 것이 좋음.
- 신용카드: 호텔, 백화점, 대형 식당 및 상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상점도 있어 현금 지참이 필수
 - 미국 현지에서는 VISA와 MASTER 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

□ 전압

- 110V, 60Hz를 사용. 한국과 전압 사용이 다르니, 출국 전 한국용 어댑터를 준비해야 함.

☐ 교통

- (택시) 기본요금은 3.50달러(1/8마일 기준)이며 기본 거리를 초과한 후부터는 1마일당 2.16달러의 요금이 가산됨. 승객 당 0.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1 마일 = 1.6km, 1/8마일 = 0.2km
- (버스) 일반 요금은 2달러(교통카드 이용 시 동일)이며, 구간별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음.
- (지하철) 피크 시간대와 오프-피크 시간대의 요금에 차이가 있으며, 오프 피크 시간대인 오전 9시 30분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요금이 더 저렴함. 운행 구간에 따라 요금은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2달러에서 6달러 사이임. 종일권(All Day Pass)은 14.75달러에 구매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지하철 카드(Smart Trip)를 구매하여 충전하여 사용함. 동 카드는 지하철역에서 구매 가능하며 지하철 키오스크 및 온라인에서 충전 가능함.

<워싱턴 지하철 노선도>



☐ 통신

○ 휴대전화

-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
- 대표적인 무선통신 회사로는 버라이즌(Verizon), 에이티앤티(AT&T), 티모바일(T-Mobile) 등 3개사가 있으며, 유심칩(USIM)을 구매하여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선결제(prepaid) 방식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므로 한 달 이상의 일정일 경우에 사용하길 권장함.

○ 국제전화

- 국내 및 국제통화는 원활한 편이며, 국제전화의 경우 로밍 서비스 및 편의점 등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매해서도 사용 가능

전화 사용 방법			
국제 전화	미국 → 한국	일반전화	00-82-0을 제외한 지역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00-82-맨 앞의 0을 제외한 핸드폰번호
	한국 → 미국	일반전화	001-1-전화번호
		휴대전화	001-1-전화번호
국내 전화	미국 내 통화	일반전화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 와이파이

- 미국 내 일반 가게에서는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지만, 스타벅스 및 기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함.

□ 현지 공휴일 정보

○ 출장지양 기간

- 연초/연말 : 한국과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부터 연말연시에는 비즈니스 거래 소강상태

〈미국 연방 공휴일〉

공휴일 명	기 간
신년	1월 1일
마틴루터킹 탄생일	1월 3째주 월요일
워싱턴 탄생일	2월 3째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주 월요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노동절	9월 1째주 월요일
콜럼버스 기념일	10월 2째주 월요일
재향 군인의 날	11월 11일
추수감사절	11월 4째주 목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단,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하루 앞당기거나 연기하여 공휴일을 준수

□ 안전

○ 신변 안전

- 워싱턴 D.C.는 미국 내 다른 주들과 비교 시 안전한 도시지만,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짐. 주요 볼거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있음.

□ 비즈니스 상식 및 에티켓

○ 식사

- 미국인들은 저녁 시간을 업무에 할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 관련 식사 약속은 오찬 또는 조찬에 이루어짐.
-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지급할 경우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됨
- ※ 통상적으로 식사비용의 오찬 시 15%, 만찬 시 18~20% 정도 팁을 지급
-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을 요망하며,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경우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것이 좋음.
-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전달을 요청해야 함.
-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함.

○ 복장

- 미국인들의 경우 한국인과 달리 비형식적인 면이 강함.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은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 착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장을 선호함.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 등의 경우는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장은 회색이나 군청색 정장을 유지하면 되나 울긋불긋한 복장은 피해야 함. 색깔이 있는 넥타이는 무방함.

○ 인사

-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임.
- 악수를 나누거나 대화를 할 경우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
-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례임. Mr. Mrs. Ms. 등이나 직업을 뜻하는 명칭을 성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고 존경의 의미를 담음. 추후 일정 정도 관계가 성립되면 친밀감의 표현으로 성을 제외하고 이름만 부르기도 함.

○ 선물

- 선물 이외에 돈을 주는 것은 뇌물로 간주하며, 선물도 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위법임. 선물이 50달러 이상 일시 공공기관에 기부하게 되어있음.
-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바이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갈 때는 꽃, 화분, 과일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인 선물임.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음.
-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

○ 약속

-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로 잡는 것이 일반적임.
- 약속 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 약속 1일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 함.

○ 문화적 금기사항

-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등에 기준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
-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 특히, 외모에 대한 언급은 절대 삼가.

II. 미국 경제 동향

1. 국가 개요

국명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국경일	독립기념일 7월 4일 (13개 주 독립선언일)
국가지도자	조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2021년 1월 취임)
수도	워싱턴 D.C. /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주요도시	New York(840만 명), Los Angeles(399만 명), Chicago(271만 명), Houston(233만 명), Phoenix(166만 명), Philadelphia(158만 명), San Antonio(153만 명), San Diego(143만 명), Dallas(135만 명), San Jose(103만 명)
위치 및 면적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80만km ² (한반도의 약 42배, 남한의 95배) · 세계 3위의 면적. 농지 47%와 산지 29% 등으로 구성
인구	3억 3천만 명 (2020년 7월 기준, 세계 3위)
민족	백인(76.3%), 흑인(13.4%), 아메리카 원주민(1.3%), 아시아계(5.9%),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 주민(0.2%), 2개 이상 인종(2.7%) ·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되었으며,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8.3%에 해당
언어	영어 (일부 지역은 스페인어 통용)

2.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US조 달러)	18.7	19.5	20.6	21.4	20.9
1인당 GDP(US 달러)	58.017	60.105	63.055	65.253	63.415
경제성장률(%)	1.5	2.3	2.9	2.3	-3.51
소비자 물가상승률(%)	1.2	2.1	2.2	1.8	1.3
실업률(%)	4.9	4.4	3.9	3.7	8.1
상품 교역액(US조 달러) 증감률(%)	3.63(▽3.00)	3.89(△7.16)	4.21(△8.258)	4.14(▽1.49)	3.76(▽9.08)
수출(US조 달러)	1.45(▽3.25)	1.56(△7.58)	1.67(△7.73)	1.64(▽1.35)	1.42(▽13.26)
수입(US조 달러)	2.18(▽2.63)	2.34(△7.34)	2.54(△8.59)	2.50(▽1.58)	2.34(▽6.33)
무역수지 (US억 달러)	-7,353(△1.11)	-7,924(▽7.69)	-8,704(▽10.26)	-8,509(▽2.03)	-9,111(▽7.07)
FDI (Position, US백만 달러)	3,765,114	4,025,492	4,344,610	4,590,836	4,526,200
외환보유고(US억 달러)	1,186	1,253	1,275	1,311	1,338
총외채(US조 달러)	18.3	20.2	21.5	22.7	21.3
환율(원/US\$달러)	1,160.50	1178.58	1117.05	1187.14	10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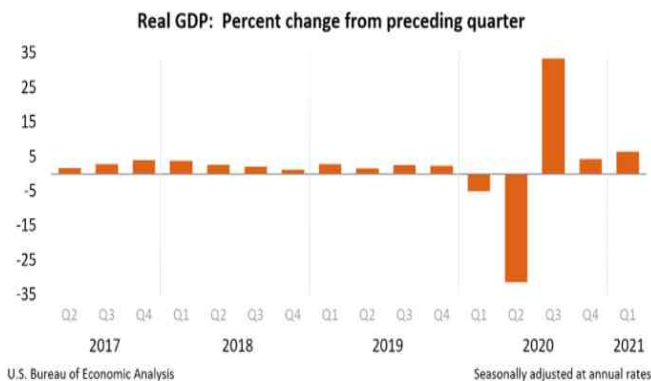
* 자료원: 국제금융기구(IMF), 美 재무부,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세계은행,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obal Trade Atlas

3. 최근 경제 동향

□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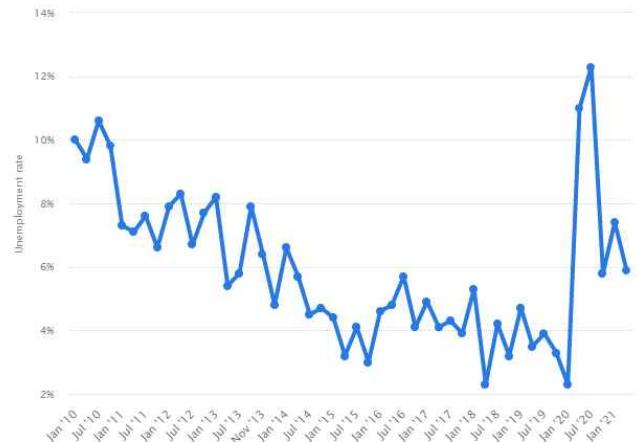
- 2021년 1분기 명목 경제성장률은 연율(年率・연간으로 환산한 비율) 6.5%를 기록하며, 기존 4.2%에서 2.3% 증가하여 낙관적인 전망
 - 반도체 부족 등 몇몇 하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보급과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는 회복세를 보임.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4.7%까지 치솟았지만, '21년 8월 5.2%로 회복
 - 대규모 국내 건설 사업을 동반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정책안 통과 여부에 따라 실업률은 이후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낮은 실업률과 별개로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동안 상향 조정된 실업급여로 인해 고용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원: 美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미국 실업률 추이>



* 자료원: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상품 대외무역

- (교역) 2020년 교역액은 약 3조 7,6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08% 감소
 - (무역수지) 2020년 무역적자가 9,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07% 증가
- (수출) 수출은 1조 4,2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26% 감소
 - 주요 수출대상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한국 순
 - 주요 수출 품목은 원자로, 광물연료, 전자기기, 항공우주, 자동차, 광학기기 등
- (수입) 수입은 2조 3,3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3% 감소
 -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베트남, 한국 순
 - 주요 수입 품목은 원자로, 자동차, 전자기기, 광물연료, 의약품 등

〈2018-2020 대외무역추이 비교표 (단위 :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수 출	1,665,992	1,643,160	1,424,934
수 입	2,540,805	2,497,531	2,335,990
총 액	4,206,797	4,140,692	3,760,925
무역수지	-874,813	-854,370	-911,056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Ⅲ. 교역 동향

1. 주요교역동향

〈2020 미국의 10대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 달러, %, *미국통계 기준)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캐나다	255,392	17.92	중국	434,749	18.61
2	멕시코	211,481	14.84	멕시코	325,212	13.92
3	중국	124,485	8.74	캐나다	270,313	11.57
4	일본	63,756	4.47	일본	119,499	5.11
5	영국	58,430	4.10	독일	115,069	4.92
6	독일	57,433	4.03	베트남	79,619	3.41
7	한국	50,965	3.57	한국	76,057	3.25
8	네덜란드	45,305	3.17	스위스	74,840	3.20
9	브라질	34,595	2.42	아일랜드	66,017	2.82
10	대만	30,219	2.12	대만	60,428	2.58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20년 기준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출·수입 대상국이며, 각 3.57%와 3.2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 미국의 수출은 USMCA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30% 이상 치중되어 있으며, 수입에서는 중국이 전년과 동일하게 1위로 약 19% 차지
-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2015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처음으로 3%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2020 미국의 주요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원자로	182,709	12.82	원자로	353,239	15.12
2	전자기기	162,785	11.42	전자기기	336,883	14.42
3	광물연료	151,164	10.60	수송기계	250,175	10.70
4	수송기계	105,560	7.40	의약품	138,735	5.93
5	광학기기	83,222	5.84	광물연료	122,699	5.25
6	항공우주	81,293	5.70	진주	106,400	4.55
7	플라스틱	60,205	4.22	광학기기	88,851	3.80
8	진주	59,817	4.19	특별 분류 규정	84,202	3.60
9	의약품	53,749	3.77	가구 및 침구류	60,272	2.58
10	특별 분류 규정	40,973	2.87	플라스틱	58,943	2.52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한국과의 경제교류

가. 수출입동향

□ 수출입 동향

〈한국의 對미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한국통계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역량	109,678	119,359	131,558	135,222	131,607
증감률(%)	-3.67	8.86	10.25	2.76	-2.67
수출	66,462	68,609	72,719	73,343	74,115
증감률(%)	-4.83	3.23	5.99	0.86	1.05
수입	43,215	50,749	58,868	61,878	57,492
증감률(%)	-1.84	17.43	16.00	5.11	-7.09
무역수지	23,246	17,860	13,851	11,465	16,623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교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과 함께 2011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한 후로 2016년을 기점으로 잠시 하락했으나, 2018년 이후 1,300억 달러로 반등
- (수출입) 2020년 한국의 對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했으며, 미국산의 수입은 7.09% 하락
- (무역수지) 한국의 對미국 무역흑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18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20년 기준 1천 6백억 원대 유지

□ 對미국 주요 수출품목

〈對미국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9	2020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73,343	74,115	1.05
1	87	수송기계	21,573	21,086	-2.26
2	84	기계류	14,923	16,697	11.88
3	85	전자기기	12,621	14,445	14.45
4	39	플라스틱	2,968	2,952	-0.55
5	27	광물연료	4,379	2,357	-46.16
6	90	광학기기	1,507	1,583	5.00
7	73	철강제품	1,939	1,522	-21.50
8	40	고무	1,670	1,442	-13.65
9	72	철강	1,393	1,063	-23.70
10	29	유기화합물	1,242	893	-28.90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2020년 對미국 수출 품목 1위는 제조업 회복과 함께 2010년부터 지속해서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인 수송기계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전년대비 9.62% 증가
- 2020년 對미국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제품은 전자기기로 전년 대비 14.85% 증가했으며, 광물연료는 -46.28%의 증감률을 보여 품목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對미국 주요 수입품목

〈연도별 對미국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9	2020	
			금액	금액	증감률
총계			61,878	57,492	-7.09
1	27	광물연료	15,621	11,869	-24.02
2	84	기계류	7,527	8,064	7.14
3	85	전자기기	6,505	6,062	-6.81
4	90	광학기기	4,106	4,116	0.26
5	87	수송기계	2,227	2,899	30.14
6	02	육류	2,369	2,282	-3.70
7	29	유기화합물	2,014	1,998	-0.78
8	88	항공우주	2,482	1,713	-31.00
9	39	플라스틱	1,730	1,619	-6.43
10	30	의약품	1,444	1,538	6.4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한국의 주요 對미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광물연료지만 전년 대비 약 24.02%의 감소를 기록
 - 수송기계 부품은 2019년 대비 2020년 30.14%가 증가해 제품 중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임.
 - 반면, 수입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제품은 항공우주 부품으로 전년 대비 31.00% 하락

나. 한미투자동향

□ 한국의 對미국 투자 동향

- 2020년 기준 한국의 對미국 투자금액은 약 147억 달러 기록
- 한국의 대미 투자(신고건수 기준)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0년 1,919건을 기록함.

〈연도별 對미국 투자 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개)	신고금액 (억\$)	송금횟수(회)	투자금액 (억\$)
2015	1,638	550	106	2,285	70
2016	1,780	519	179	2,492	137
2017	1,844	542	137	2,512	152
2018	1,939	548	127	2,519	112
2019	2,068	652	184	2,781	148
2020	1,919	511	183	2,525	147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FDI) 동향

- 2020년 기준 미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약 87억 달러(신고기준)로 전년 대비 약 28% 상승
- 2019년 403건으로 집계됐던 신고건수는 2020년 501건으로 약 24.3% 상승

〈연도별 미국의 對한국 FDI 추이〉

2016		2017		2018		2019		2020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신고 건수	신고금액 (천\$)
375	3,872,916	409	4,710,299	368	5,879,000	403	6,842,000	501	8,756,891

*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Ⅳ. 워싱턴 지역정보

1. 일반 사항

명칭	워싱턴 특별시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특징	미국 50개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특별 행정구이자 연방정부 직할 독립 도시
정부	- 시장 : Muriel Bowser (민주당) *2015년 취임 - 연방하원의원 : Eleanor Holmes Norton
면적	- 도심 : 177km ² - 광역지역 전체 : 14,412km ² *서울(605km ²)의 약 24배
인구	- 도심 : 69.27만 명 (' 20년) - 광역지역 전체 : 532만 명 (' 20년)
GDP	- 도심 : 1,221억 달러 (' 20년) - 광역지역 전체 : 4,921억 달러 (' 19년) *전년 대비 약 9% 감소
산업별 고용	- 전문직/비즈니스서비스(24%), 정부관련(22%), 교육/건강서비스(13%), 무역/교통/공익사업 (12%), 관광·레저산업(11%) *2019년

※ 워싱턴 광역지역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웨스트버지니아주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미국의 6번째(인구 기준)로 큰 광역지역임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워싱턴 DC		
	수치	증가율(%)	비중(%)
인구(만 명)	623만 명		1.9
면적(만 km ²)	14,412		0.15
GDP(억 달러)	4,921	-9%	2.7
실업률	7.8%('21년 3월)	-0.6%('20년 7월)	-
수출(백만 달러)	453 ('20년)	22.7%	0.2%
개인당 평균지출(달러)	95,441('18년)		* 미국전체평균 : 62,395
개인당 평균소득(달러)	128,871('18년)		* 미국전체평균 : 80,750

* 자료원: 미국 통계청

3. 워싱턴 지역경제 위상

□ 워싱턴 경제의 현황

○ 코로나19의 영향

-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워싱턴 DC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재택근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
- 2020년 8월 4차 경기부양안 통과 이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2021년 5월 이후 상업 제재 완화로 경기회복세 지속
- 워싱턴 DC는 7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3단계에 걸쳐 식당, 사무실 등 실내 장소의 정원수를 상향하여 조정할 것을 발표(7월 6일 기준 20%, 8월 9일 기준 40%, 9월 13일 자율 조정)

○ 연방정부 기반의 경제 구조

- 연방정부가 워싱턴 일대에서 36만 명의 공무원과 관련 업종 종사자를 포함한 지역 고용의 22% 이상을 담당
- 2001년 이후 연방정부의 워싱턴지역 내 지출이 50% 이상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함. 특히 워싱턴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상품과 서비스 조달 비율이 증가

○ 민간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급속히 증가

- 포춘 선정 미국 1,000대 기업 중 30개사의 본사가 워싱턴 광역지역에 소재
- 미국의 수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총 6,600개에 달하는 각종 협회와 비영리기관 1,500개가 이 지역에 본부를 두고 활동

○ 첨단산업의 메카로 각광

- 항공 방위 산업, 생명공학, IT 등 첨단산업의 메카로 급성장하여 5만 명 이상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활동
- 미국 보건정책과 연구의 핵심인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생명공학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전 세계의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을 선도
- 정보통신 분야에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보다 3만 명이나 많은 22만 명 이상의 IT 관련 종사자가 근무하는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손꼽힘

○ 지식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

-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그리고 첨단산업의 삼각 주축대를 바탕으로 법률, 금융, 미디어, 관광 등 지식 고부가가치 산업이 진출해 있음

□ 워싱턴 지역 주요 산업 동향

○ 항공방위 산업

- 워싱턴 DC 인근에 소재한 12대 주요 방위산업체의 총매출액은 1조8천억 달러에 달하며, 미국의 방산 제품 수출은 전 세계 군수품 시장의 37%, 수입은 13.5%를 차지하는 등 항공 방위 산업은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여겨짐
- 최근 미국 방산 업체의 사업 방향은 해외 군수 관련 업체를 합병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형태를 보이며, 자국 내 방산예산의 감축으로 해외 수출 기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 국방부와 각종 군 기관이 위치해 있는 워싱턴 광역지역은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총본산으로 이 분야에 수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활동

○ 바이오/제약 산업

- 미국은 전 세계 생명공학 관련 특허의 2/3를 보유하여 생명공학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구가
- 워싱턴 지역에는 국립보건원(NIH), 식약청(FDA),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등 바이오 관련 정부 기관 및 연구단체가 소재하고 있어 미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
-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를 중심으로 400여 바이오 연구개발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어 전통 제약기업과 신생 바이오기업 간 기술제휴, M&A, 라이선싱 계약 등이 활발히 진행 중

○ IT 산업

- 워싱턴은 IT분야 지역 총생산 전미 1위 지역으로서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 시에도 워싱턴 및 인근지역은 지속해서 성장
- 상용품 개발 위주의 실리콘밸리/보스턴과 달리,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의 IT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종합 솔루션 제공에 주력하여 델러스, 애틀란타에 이어 미국 내 3위 텔레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를 형성

○ 서비스 및 관광 산업

- 정치, 사법, 행정의 중심지답게 세계적인 법률회사들이 워싱턴 중심의 K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밀집해있으며 법률서비스 외에도 의회를 대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로서의 역할도 겸함
-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조지 워싱턴 대학 등의 유수의 대학기관들이 소재하여 교육, 의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의 14%에 달함
- 매년 약 1천5백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은 관광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광역 워싱턴 지역은 행정부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관광 수입이 시 전체의 2번째로 큰 수입원일 만큼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음.

V. 기타 유용정보

1. 국가 개요

□ 워싱턴 기념탑 (Washington Monument)

-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완전 석조 구조물(69m 높이)로서 1848년 기석이 만들어진 이후 완성까지 37년이 걸렸다.
- 탑의 주위에는 미국 50개 주를 상징하는 국기가 둘러져 있고 탑의 꼭대기의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다.
- 기념탑 앞으로는 길이 690m에 달하는 인공 수조인 리플렉팅 풀이 조성되어 있어 해가 진 후 조명을 밝힌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이 물 위에 비친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 국회의사당 (The Capitol)

- 미 상원, 하원 및 그 부속기관을 수용하고 있는 워싱턴의 대표 건물로서, 그리스 복고 양식으로 건설되어 중앙의 돔 아래는 유명한 로툰다로, 둘레의 벽에는 콜럼버스부터 미국의 역사를 그린 유화와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 건물의 한 가운데에는 링컨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의회가 개최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의장을 볼 수 있다.



□ 백악관 (White House)

- 약 200년간 미국 대통령의 관저이자 집무실의 역할을 해온 백악관은 총 132개의 방이 있는데, 1층의 이스트 룸과 그린 룸, 블루 룸, 레드 룸, 스테이트 다이닝 룸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 링컨 기념관 (Lincoln Memorial)

-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리스 신전 모습을 본떠서 지어졌으며, 36개의 그리스 양식 기둥을 가지고 있고 중앙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거대한 대리석 좌상이 있다.



□ 워싱턴 국립 대성당 (Washington National Cathedral)

-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축물인 워싱턴 국립 대성당은 영국 성공회 워싱턴 교구 성당으로, 국가적 차원의 범종교적 행사가 치러지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립 대성당”으로 불린다(대통령 취임식 기도회, 국장(國葬) 거행).
- 1891년 의회에서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기도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를 개최할 장소”를 만든다는 취지로 대성당 건립이 결정되어, 100년이 지난 뒤인 1990년에야 완공되었다.



□ 스미소니언박물관 (Smithsonian Institution)

-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유물과 순수 예술 작품들의 정수들은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관리 하에 있다. 1846년 ‘인류의 지식 증가와 보급을 위해’ 영국인 제임스 스미스에 의해 박물관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현재 프리어미술관, 자연사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현재 17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이 모인 종합 박물관이다.



□ 국립미술전시관 (National Gallery of Arts)

- 1941년 완공된 국립 미술관은 서관과 동관, 조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 약 2만점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예를 들어 렘브란트, 루벤스, 고갱, 고흐, 마네, 르누아르, 로댕 등 13세기에서 19세기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 마운트 버넌 (Mt. Vernon)

-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가가 있는 마운트 버넌은 그가 22살 때부터 서거할 때까지 살던 장소이다.
- 워싱턴이 살던 저택과 그의 무덤이 있으며 저택 안에는 생전에 쓰던 책상과 의자, 침대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조지 워싱턴 생전 자취를 느끼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2. 호텔 및 식당

□ 주요 호텔

호텔명	소재지	전화	홈페이지
윌라드 호텔	DC 도심	202) 628-9100	www.willardwashington.com
JW 메리엇	DC 도심	202) 393-2000	www.marriott.com
캐피털 힐튼	DC 도심	202) 393-1000	www1.hilton.com
그랜드하얏트	DC 도심	202) 582-1234	www.grandwashington.hyatt.com
웨스틴 알링턴	알링턴	703) 717-6200	www.westinarlingtongateway.com
메리디언 호텔	알링턴	703) 351-9170	www.starwoodhotels.com/lemeridie
세라톤 타이슨스	타이슨스	703) 448-1234	www.sheratontysonscorner.com
메리어트 타이슨스	타이슨스	703) 734-3200	www.marriott.com

□ 주요 식당

식당명	전화	소재지
한강(한식)	703) 256-7077	724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빛고을 순두부(한식)	703) 333-3436	4121 Chatelain Rd #100, Annandale, VA 22003
스시타로(일식)	202) 462-8999	1503 17th St NW, DC 20036
스시아오이(일식)	202) 408-7770	1100 New York Ave NW, DC 20005
Tony Cheng's(중식)	202) 842-8669	619 H St NW Washington, DC 20001
장원반점(중식)	703) 354-1950	4210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올드에빗 그릴(양식)	202) 347-4800	675 15th St NW, DC 20005
Founding Farmers(양식)	202) 822-8783	1924 Pennsylvania Ave NW, DC 20006

3. 유용한 연락처

☐ 주요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경찰 및 앰블런스	911	-
긴급의료시설	국번 없이 411	-
주미대한민국대사관	202-939-5600	245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202-939-5653	2320 Massachusetts Ave. N.W. DC 20008

☐ 무역관 연락처

○ (대표전화) +1-202-857-7919

○ (주소) 1660 L Stree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성명/직위	전화번호(직통)
박지웅 / 워싱턴무역관장	202-527-4151 (101)
진준현/ 차장	202-857-7919 (109)
정세원 / 과장	202-857-7919 (103)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